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민사

한낮의 햇살로 도도하게 흐르는 감강이 고기비 늘처럼 반짝인다. 멀리 보이는 강가의 정자 주변이 흥인 대사가 제자 혜능을 떠나보냈던 나루터라고 한다. 강소성의 성도인 남창의 지명이 홍주(洪州)였던 당나라 때에는 감강이 서강(西江)으로 불렸던 것 같다. (마조록)에도 서강으로 나오고 있다. 순례 일행이 지금 가고자 하는 우민사(佑民寺)는 남창 시내 8.1공원 부근에 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계사와 같은 위상의 절이라고 한다. 절의 규모도 원래는 대단해서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가는 기마관산문(騎馬關山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이다.

우민사가 처음 창건된 얘기는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남조 양나라 예장왕의 왕자 갈삼의 집 언저리 우물에 사는 교룡(蛟龍)들이 서로 싸우므로 대불을 세웠는데 이후 진정이 되자, 갈삼이 자신의 저택을 547년에 대불사로 바꾸었다는 것이 창건설화다. 교룡들은 갈삼과 경쟁했던 정적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불심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것 같다. 당나라 때는 황실의 국찰(國勅)로서 개원사로 바뀌고, 송대에는 능인사, 명대에는 영녕사, 청대에는 우청사, 민국시대에 우민사로 개칭됐다고 한다.

우민사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아마도 마조 대사가 주석하면서 강호의 선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민사를 마조 대사의 행화도량이라 하고, 마조선 즉 홍주종(洪州宗)을 개창한 도량이라고 부를 터이다.

그 옛날 홍주의 개원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조 대사와 방거사의 선문답이고, 또 하나는 마조 대사의 손상좌인 황벽 선사와 배휴가 회람에 붙은 고승의 초상화를 놓고 문답하는 선화이다. 황벽 선사와 배휴의 선화는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에는 마조 대사와 방거사의 선화를 다루고자 한다. 선화로 들어가기 전에 방거사가 어떤 인물인지 (방거사어록)의 서문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사의 이름은 은(蘊), 자는 도현(道玄), 출신은 양양(襄陽)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아버지는 형양 태수로 있었다. 거사는 형양 남쪽에서 한때 살다가, 그 집 서쪽에 암자를 지어서 불법을 닦은 지 수 년 만에 가족 모두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현재의 오공암(悟空庵)이 그곳이다. 그 뒤에 암자 아래쪽에 있던 자기 집을 기증하여 절을 만들었다. 현재의 능인사(能仁寺)가 그것이다. 정원 년간(785-805)에 수많은 기보를 배에 싣고 동정의 상강으로 저어 나가서 강물 한 가운데 집어던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마치 물 위에 떠내려가는 한낱 나뭇잎과도 같은 생애를 지냈다. 거사에게는 아내와 일남 일녀가 있었고, 나타나 세 공품을 만들어 팔아서 조석 끼니를 때워나갔다.”

방거사가 선문(禪門)에 든 계기는 단하(丹霞)와 같이 장안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한 행각승을 만나 그에게 “관직에 오르는 것이 불위(佛位)에 오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홀로 불법을 공부하다가 석두 선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전해진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에 석두 선사는 그의 입을 막았는데, 그 순간 그는 현묘한 선리를 터득했다고 한다. 이후 거사는 남약 현상을 떠나 서강이 흐르는 홍주의 마조 대사를 찾아가 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바, 이때의 문답이 마조서강(馬祖西江)이란 공안이 된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 버리면 그때 가르쳐 주지.”



마조대사가 주석하면서 승속을 불분하고 홍주종의 선풍을 날렸던 우민사.

이때 방거사는 크게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다.

시방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각기 무위를 닦고 있구나.
이 자리 바로 부처 뵈는 곳
마음 비우고 급제해 돌아가네.
十方同一會 各各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

이와 같은 방거사를 (대광명장(大光明藏)) 중권의 방거사장(龐居士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라”

“석두를 본 순간, 거사의 의기는 이미 그와 통하고 있었다. 거사는 이 의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집약하여 보란 듯이 마조에게 던졌다. 그러나 마조의 한마디 기침소리에, 얼음이 녹듯 기왓장이 부서져서 그 의의도 깨닫기 풀려졌다.”

방거사는 마조 대사가 자신의 입적도량인 보불사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머무렸던 것 같다. 그 무렵에 방거사가 마조 대사에 물었다.
“역력한 본래인(本來人)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

니다. 부디 눈을 위로 올려 떠주십시오.”
그러나 마조 대사는 눈동자를 밑으로 내리깔았다. 거사가 말했다.
“내내 같은 이 무현금(無玄纒)을 스님 또한 능숙하게 잘 타시는군요.”

이번에는 마조 대사가 눈길을 위로 올렸다. 여기에서 거사가 절을 올렸다. 마조 대사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뒤따라온 거사가 마조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바보짓을 한 것 같습니다.”
거사는 마조 대사에 다시 물었다.

“물은 근육도 뼈도 없지만 만석(萬石)을 싣는 배라도 거뜨히 떠받칩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리입니까.”
이에 마조 대사가 말했다.

“여기에 물도 배도 없는데 근육이니 뼈니 하는 것은 또 웬 말인가.”

질문을 던진 거사가 발판 삼아서 있는 그 자리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을 선문에서는 소탕문(掃蕩門)이라고 하는데, 이 소탕문 덕분에 거사는 깨달음의 인연을 더 깊게 짓지 않았을까 싶다. 마조 대사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궁지에 몰렸으나 공부인으로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순례 일행은 우민사 산문 앞에서 하차한다. 산문 안쪽에 ‘마조도량 우민사’라는 편액이 보인다. 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하여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마조 대사의 그림자나마 남아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천왕전을 지나니 다른 절에

서 볼 수 없는 동불전(銅佛殿)이 보인다. 18톤 크기의 동불이 봉안돼 있어 전각 이름이 동불전이 된 모양이다. 동불전 마당에는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인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가 서 있다.

그리고 보니 우민사는 도의 국사가 마조 대사의 고족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에게 법을 받은 절로 순례 일행에게도 뜻 깊은 곳이다. 기념비 첫 문장에도 도의 국사가 구법 입당하여 제방을 참방하다가 이곳에서 서당 지장 선사를 만나 여래심인을 인가받아 육조의 종지를 한국에 최초로 전했다고 음각돼 있다. 수불 스님이 마조선이 국내로 전하게 된 인연을 말씀하신다.

서당 지장에게 법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 육조의 종지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하다

“마조 스님이 이곳에서 한 16-17년 정도 주석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강호의 제현들이 마조 스님을 찾아뵈고 선문답을 하고 한판 내용맹이점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당 지장 스님이 여기서 주지로서 사할 때 우리나라 도의 국사가 찾아왔을 겁니다. 서당 지장 스님에게 심인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는 귀국하여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했고, 국사의 심인이 제자 염거 화상에게, 다시 보

조 체징 선사에게 전해졌으며 체징 선사는 현안왕 3년(859)에 전남 장흥 보림사를 창건하고 가지산문을 열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발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조담집) 제 17권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편에 도의 국사 행장이 짧게 소개되고 있는바, 요약하자면 이렇다.

“서당의 법을 이었고 명주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요, 속성은 왕 씨이며 북한군에서 살았다.(중략) 강서 홍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 지장에게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고, 의심을 풀고 막힌 체증을 풀니, 서당 대사는 마치 돌 틈에서 옥을 고른 듯하고 조계 껍질에서 진주를 주워낸 듯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그리고는 이름을 도의로 고쳐주었다.

이어, 두타의 길을 떠나 백장산 회화상사로 가서 마치 서당 화상처럼 하니 백장이 이렇게 말했다.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백장도 사형인 서당 못지않게 도의 스님을 찬탄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도의 국사가 육조의 종지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종헌종법에 도의 국사를 종조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민사 경내의 나뭇가지에는 수많은 붉은 리본들이 걸려 있는데, 아마도 신도들의 축원문인 것 같다. 티베트인들이 긴 장대에 거는 오색 깃발인 툽다와 같은 듯하다. 수불 스님이 붉은 리본들이 매달린 나무 밑으로 가 마지막 회향법문을 준비하신다. 우민사를 오기 전 감강가에 있는 등왕각에 들렀을 때 나와 아내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빌려 입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스님이 그 점을 지적하며 말머리를 푸신다.

“소설가 정찬주 씨 내외가 등왕각에서 왕과 왕비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도 스님도 한 번 찍어보라고 권하기에 ‘저는 왕 노릇하는 것보다 머리 깎고 수행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더구나 괜히 왕 사진 찍은 인연으로 다음 생애 왕이 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이 좋겠지요. 하나 저는 머리 깎은 수행자가 좋아요. 그러나 초지일관해야지요. 우민사라는 절 이름처럼 백성 가까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으로 불법을 마음껏 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으로 와 먼 오지까지 순례를 다닌 행운을 누렸습시다. 과거의 선승들은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 수 없었던 그런 곳까지 우리는 단숨에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좋은 세월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겁니다. 인연 따라 또 다시 순례 와서 자기 점검하고 공부하는 마음자세로 수행자다운 품모를 지닐 수 있게끔 정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민사 산문을 나서는데,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이 속에서 한 중국여성이 수불 스님 앞으로 와 공양물을 올리더니 무릎 꿇고 삼배를 올린다. 스님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원을 한다. 아마도 여인은 불단에 올릴 공양물을 스님에게 무심코 보시한 것이라. 문득 부처님께 정성으로 권 등불은 태풍도 끄지 못하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가난한 여인이 떠오른다. 지고지순한 정성이야말로 성불에 이르는 첫 걸음이 아닐까. 1,2 차 순례 길에서 일행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 가슴에 맑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한 여인의 불심이었다고 믿어진다. (끝)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법정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스님의 수행처 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들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뵈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정찬주의 마음기행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